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악한 사람과는 가까이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1월 29일)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총무원장 직인 인계 태고종 정상화 청신호

제15대 중앙종회 제140회 정기회의 열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태고종단 내홍의 불씨로 지목된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총무원장 직인을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에게 인계했다. 이에 따라 제27대 집행부가 태고종 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 내홍 종식을 선언하며 종단 정상화를 향한 청신호가 켜졌다.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집행부는 12월 19일 서울 사간동 종단 청사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 진입했다. 이날 청사 앞은 호명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제27대 집행부와 제15대 중앙종회의원들이 밀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얼마 전 당선된 중앙종회의원들은 제140회 정기 중앙종회 개회를 위해 청사를 개방할 것을, 제27대 집행부는 법적 지위가 정지된 편백운 스님의 퇴거를 촉구했다. 하지만 청사 문은 굳게 잠긴 채 개방되지 않았다. 편백운 스님은 이날 오전 청사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제27대 집행부와 제15대 중앙종회는 물리력을 동원해 문을 개방하고, 별다른 충돌 없이 청사에 진입했다.

청사에 들어선 스님들은 곧바로 제140회 정기 중앙종회를 개원, 종지종풍 선양과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선서했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는 52명이 당선됐지만 회의에는 48명이 참석해 각각 의원 자격을 얻었다.

회의에서 제15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으로는 법담 스님이 선출됐다. 법담 스님은 제14대 중앙종회에서 특별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장 선거에는 인천 용궁사 능해 스님과 양주 청련사 지홍 스님이 경쟁후보로 나섰으나 법담 스님이 최종 당선됐다. 수석부의장은 진천 보현사 상명 스님, 차석부의장 제주 정방사 혜일 스님이 각각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법담 스님은 "종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중앙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원칙과 신뢰, 희망 속에서 종회를 꾸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장단 선출을 마친 종회는 정식 안건을 처리했다. 제5대 원로회의 의원 선출과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의는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다만 원활한 종무행정을 위해 총무원장이 제안한 교육원장 법안 스님, 총무부원장 성오 스님, 법규위원장 혜주 스님, 사회복지원장 휴완 스님 임명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외에 총무원 집행부 홍보부장 법훈 스님, 전법사부장 심원 법사, 종무위원 도종 스님 임명 동의안도 처리됐다.

편백운 스님은 이날 종회가 진행되던 사이 호명 스님에게 대화를 제안, 경찰 입회 아래 청사 2층 총무원장실에서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편백운 스님은 총무원장 직인과 함께 평화적으로 종무를 인수인계할 것을 약속했다.

호명 스님은 종회에서 내년도 종단 사업계획으로 종단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매월 주요인사 연석회의와 전국시도교구 국장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종무행정 프로그램 재정비 △종단 홍보기능 강화 △승려 및 사찰 분한 신고 활성화 △국운융성 및 종단발전 기원대법회 △교육제도 정비 및 교육기관 지원 △승려의 무금 조정안 마련 △승풍 기강 확립 △전국신도회 조직 정비 △한국불교신문 · 월간불교 정비 등 총 10대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호명 스님은 "제27대 총무원 집행부는 종무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15대 중앙종회와 모든 종도들의 염원 속에 드디어 성과를 얻게 됐다"며 "약 1년간 마비된 총무원 업무를 다시 시작해 종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편백운 스님 측 대화 요청에
평화로운 인수인계 약속 받아
전반기 의장 법담 스님 선출
각급 임원 임명동의안도 처리
가처분 호명 스님 지위 인정

앞서 지난 5월 총무원장에 당선된 호명 스님은 편백운 스님의 청사 출입 방해로 인해 청사와 떨어진 오피스텔에 임시 총무원을 운영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 종무를 이어왔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과의 이날 약속에 따라 태고종은 내년을 기점으로 종무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날 법원이 편백운 스님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과 태고종중앙회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호명 스님의 총무원장 정당성은 종단 안팎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명 스님이 편백운 스님에게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과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18일 인용했다. 법원은 호명 스님 측 인사의 출입을 막는 행위, 퇴거 요구에 편백운 스님이 불응하는 행위 등을 할 시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편백운 스님이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이사장 직무를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편백운 스님이 호명 스님에게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각했다.



새해 소원 "모두가 행복한 한해" 서울 조계사가 연말연시 사찰을 찾은 신도와 시민들을 위한 소원탑을 만들었다. 12월 16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의 소원탑에 소원지를 붙이는 불자들의 모습이 간절해 보인다. '건강' '자녀 학업성취' '성공' 등 저마다 각자 소원을 써서 탑에 단다. 하나 둘 붙여진 작은 소원들로 탑은 거대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소원으로 바뀔 것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韓포레스트 검프' 진오 스님 美대륙 횡단

베트남 108해우소 건립 목적
"자비의 마라톤은 수행"

2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LA에서 뉴욕 5,130km 횡단
준비 위해 올해 순례마라톤도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로 불리는 자비의 마라토너 진오 스님〈사진〉이 새해 베트남 전쟁의 참회와 베트남 주민을 돕기 위한 美대륙 횡단에 돌입한다. LA에서 뉴욕까지 스님이 뛰는 거리만 해도 5,130km에 달하는 대장정이다.

결혼이주여성 쉼터인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진오 스님이 2020년 2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120일간 미국 대륙 횡단 마라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오 스님의 마라톤은 단순한 마라톤이 아닌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한 '탁발마라톤'이다. 스님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알리기 위해 2011년 한반도 308km을 시작으로 베트남, 독일, 일본,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에서 300km부터 많게는 1200km까지 탁발마라톤을 전개하고 있다. 스님이 뛰는 1km마다 100원씩 모금돼 국내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스님은 이렇게 모연된 기금 중 일부를 2012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농촌학교 54곳의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썼다. 왜 베트남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베트남 전쟁 참가국 국민으로서의 참회'다. 전쟁의 참화를 겪어 회복하고 있는 베트남 농촌지역의 경우 학교에도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다. 위생 상태가 열악해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스님과 후원하는 불자들이 지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만도 1만 2000명에 달한다.

앞으로 스님은 54곳의 화장실을 더 건립해 108곳의 화장실을 세울 예정이다. 이른바 '108 해우소 사업'이다.

스님이 미국에서 베트남 화장실 건립을 골자로 한 횡단 마라톤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 국민들도 이를 알고 함께 참회 ·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는 한반도의 평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

스님이 지금까지 뛴 거리가 1만5000여km가 넘지만 한번에 5000km를 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님은 올해 초부터 미국 대륙 횡단 마라톤 기금 모연을 위해 조계종 교구본사 순례 마라톤을 진행해왔다. 매월 한 차례씩 전국사찰 한 곳씩을 정해 5일간 직접 뛰었다. 이런 노력 끝에 불자들의 십시일반 도움을 통해 스님은 120일간 체류할 캠핑차량 임대 및 숙식 등의 제반 비용은 해결했다. 남은 것은 스님의 체력에 달려있다.

출가 후 군법사로 있을 당시 한쪽 눈을 실명한 스님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돕는 탁발마라톤은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마음의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되었다"며 "내가 가진 것은 두 다리밖에 없다. 사람마다 출신 국가는 달라도 행복 추구는 평등하며 다르지 않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은 수행의 시간"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스님은 끝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준 공덕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향을 해야한다. 나와 남이 이로운 탁발마라톤은 자비 나눔의 길"이라고 마라톤에 임하는 자세를 전했다.

한편, 스님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마라톤 후원 내역은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www.maha108.net)에 자세하게 공개된다.

(054)454-78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답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답게' 산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답게살겠습니다 캠페인 다큐멘터리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
BBS 불교방송 방/송/안/내
❶차 12/24(화) 11:40 ❸차 12/28(토) 00:40
❷차 12/25(수) 13:40 ❹차 12/30(월) 19:30
주최/주관 :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7대 종단 답게살겠습니다 운동본부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TEL 02-2272-3848 http://www.답게살겠습니다.kr